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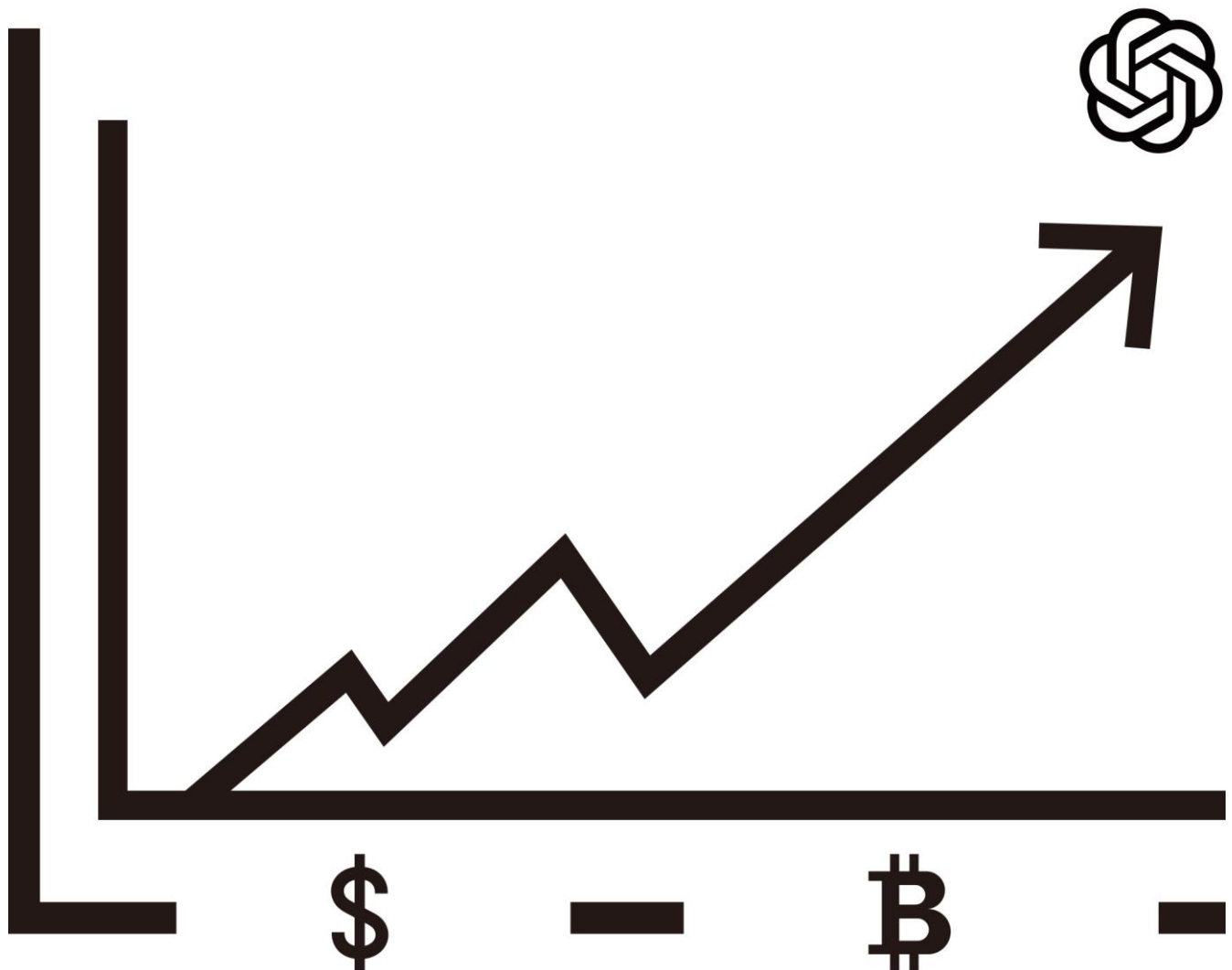
중국의 토큰 경제

오늘의 차트

GPU 보완기술로서 CPU 재평가

칼럼의 재해석

트럼프의 방중, 지켜볼 것은 양국 정상직 전략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중국의 토큰 경제

- ✓ 중국 AI 모델의 Token Export: 높은 가성비 경쟁력으로 해외 점유율 확대
- ✓ 중국정부 토큰 기반 수익 모델 추진. 폭발적인 수요로 중국에서도 AI 인프라 병목 현상 확인
- ✓ 물량(P)과 가격(Q)이 동반 상승하는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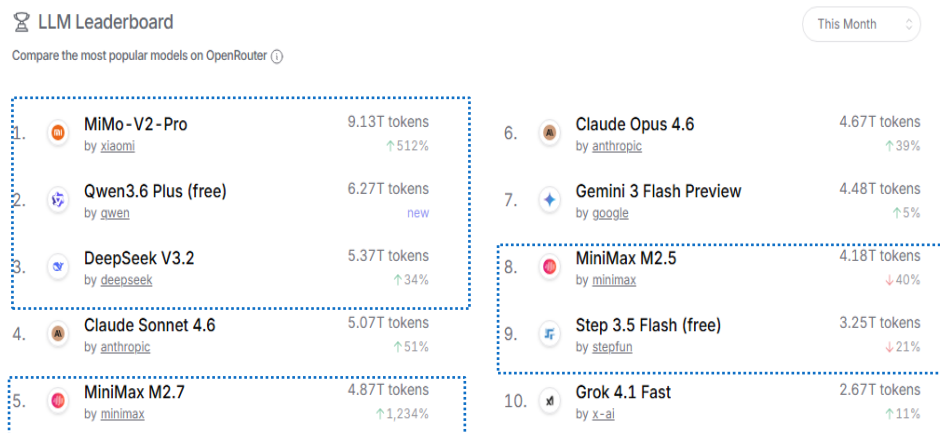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전략 - 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Token Export

태양광, 전기차에 이어 최근 주목을 받는 중국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있다. 바로 토큰(Token)이다. 토큰은 AI의 언어 처리 단위이다. 올해부터 전세계적으로 에이전트의 사용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토큰 소비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중국의 AI 모델들이 높은 가성비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4월 22일 기준 LLM 배포 플랫폼인 오픈라우터(OpenRouter)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 호출량 기준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 브랜드이다(그림 1). 이 중 상위 3개 모델이 샤오미의 MiMo, 알리바바의 Qwen, 딥시크로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앤트로픽, 구글을 능가했다. 또한 AI 스타트업인 미니맥스(Minimax)와 스텝펀(Step)도 각각 2개와 1개 모델을 상위 10개 랭킹에 올리는 좋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그림1 4월 오픈라우터에서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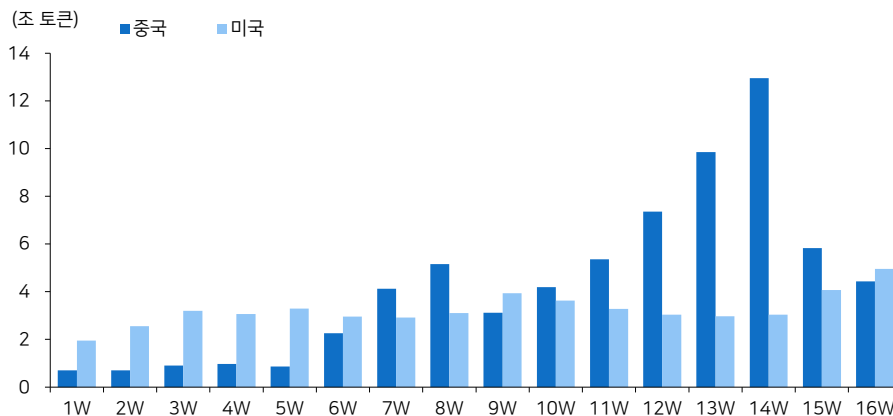
자료: OpenRou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AI 모델의 토큰 사용량이 미국 모델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이다(그림 2). 오픈클로 등 에이전트 사용에 토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전체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 대안으로 가성비가 좋은 중국의 AI 모델 사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AI 모델의 가격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미국 AI 모델 가격의 5% 수준이다(그림 3, 4)

개발자들은 오픈클로 등 에이전트가 하루에 수백 만개의 토큰을 소모하기 때문에 토큰 당 가격 차이가 적더라도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잡한 문제들은 성능이 좋은 미국 모델을 사용하고, 단순한 작업들은 중국 모델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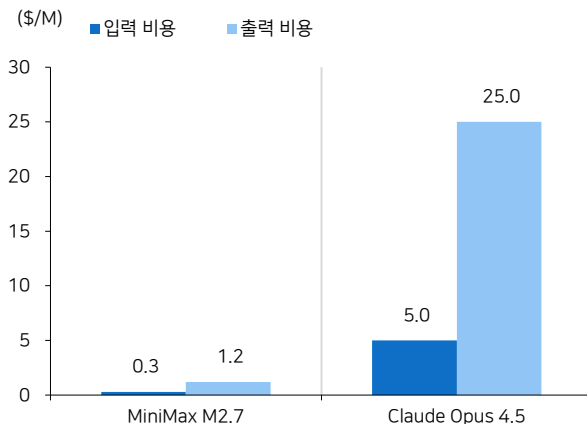
결국 중국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이념적인 결정이 아니라 순수 사업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산업 변화는 가성비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AI 모델이 해외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중이다.

그림2 중국과 미국 모델의 토큰 호출량 비교: 7주차부터 중국 모델 > 미국 모델



자료: OpenRou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비슷한 성능의 미·중 모델 비교: 출력 비용 20배 차이



자료: OpenRou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의 AI 모델들의 가성비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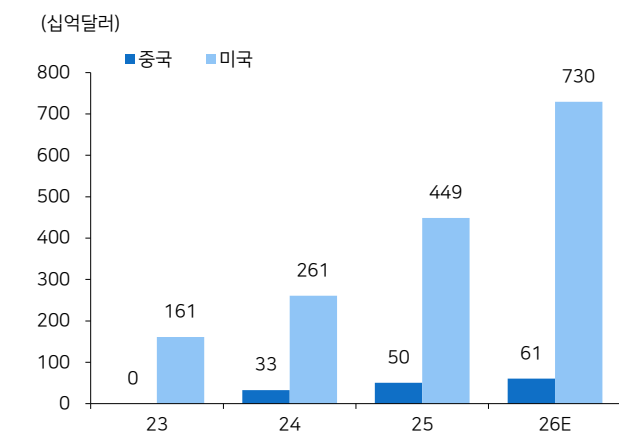


자료: F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모델의 가성비 경쟁력: 구조적 최적화의 결과

중국 AI 모델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단일 요인의 산물이 아닌, 다각적인 구조적 효율성 우위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고성능 칩 조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고효율 추론 아키텍처 기반의 훈련 비용 절감, ② 저렴한 산업용 전력 요금, ③ 실리콘밸리 대비 33~50% 수준인 엔지니어 인건비 및 ④ 정부의 R&D 세제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을지 모르나, 생태계 전반의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5 중국과 미국의 주요 CSP Capex 비교



주: 중국은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3개 CSP 기준. 미국은 구글, MS, 아마존, 메타, 오픈AI 5개 CSP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대비 중국의 AI 모델의 비용 추정

비용 항목	중국 (미국=100)	비고
① 모델 훈련	10~20	· 중국은 하드웨어 열세를 알고리즘 최적화로 극복
② 전력	≈ 33	· 중국 서부 낮은 전기료 사용 · 국산 칩으로 구축된 데이터센터는 50% 정부 보조금 지원
③ 엔지니어	33~50	-
④ 정부 보조금	+@	· 혁신기업 R&D 세금 우대 · 컴퓨팅 소비쿠폰 지원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토큰에 기반한 수익모델 추진

중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AI 수요를 국가 차원의 수출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연산력-에너지 시너지'를 국가적 우선순위 과제로 상정하고, 에너지 정책과 AI 산업 경쟁력을 명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저비용 토큰 생산 체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서 국가데이터관리국장은 토큰에 '츠위안(Ciyuan, 词元)'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스마트 시대의 가치 척도이자 표준 결제 단위로 선포했다. 이는 중국이 토큰을 노동·자본과 같은 핵심 생산 요소로 승격시키고, 토큰에 기반한 독자적 수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알리바바 역시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한 'AI 토큰 허브(ATH)'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16일, 알리바바는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AI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최상위 독립 사업 그룹으로 통합하며 토큰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꾀했다. ATH는 '토큰의 창조, 공급, 그리고 응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부터 개인 및 기업용 AI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여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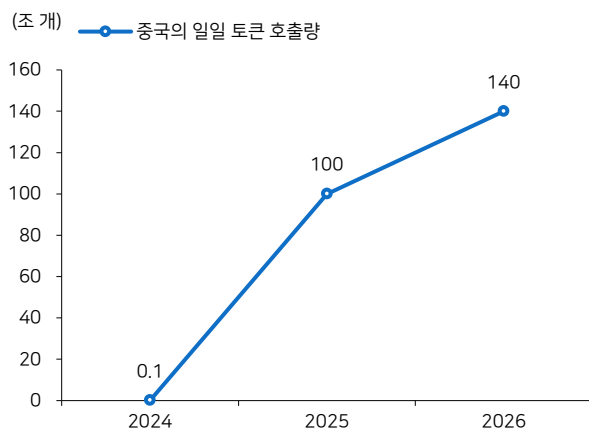
중국에서도 확인된 AI 인프라 병목 현상

중국 내 AI 토큰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관리국에 따르면 3월에 중국 LLM 모델의 일일 토큰 호출량은 140조 건을 돌파했다. 이는 2024년 초 일일 0.1조 건 수준에서 불과 2년 만에 1,40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Doubao)' 모델은 자사 생태계 내 강력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2024년 5월 0.1조 건에서 올해 3월 120조 건으로 호출량이 수직 상승하며 수요 폭증을 견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중국산 모델의 '토큰 수출'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시장의 업사이드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공급 측면의 제약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고성능 AI 가속기 조달이 제한된 가운데, 로컬 칩 생산 역시 노광장비 확보의 어려움과 수출 안정화 지연으로 공급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메모리 가격까지 급등하며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가중시켰고 이는 전반적인 컴퓨팅 자원의 수급 타이트닝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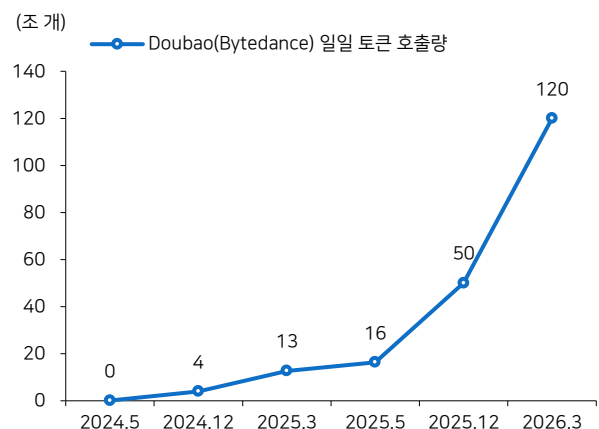
폭발적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의 불균형은 결국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이되었다. 3월부터 중국 클라우드 3사는 서비스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텐센트는 평균 400% 이상을 인상했고, 알리바바와 바이두도 평균 30% 내외의 가격 인상에 나섰다(표 1). 이는 연초 아마존(15%), 구글(10%)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중국에서도 강력한 AI 인프라의 병목 현상이 재확인되었다.

그림7 중국의 일일 토큰 호출량 추이



주: '26년은 3월 기준, 퍼블릭 API와 대중 서비스에 국한된 지표
자료: 국가데이터관리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바이트댄스 LLM 더우바오의 일일 토큰 호출량 추이



자료: 바이트댄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중국의 CSP 3사 3월부터 일제히 서비스 가격 인상

기업명	인상시점	서비스 항목	입력 가격 (위안/백만토큰)	출력 가격 (위안/백만토큰)	평균 인상폭 (%)
Tencent	03월 13일	HY2.0 Instruct	0.8→4.5	2.0→11.1	459
		HY2.0 Think	1.0→5.3	4.0→21.2	430
Alibaba	04월 18일	Zen810E 컴퓨팅 서비스			5~34
	05월 15일	CPFS(Cloud Parallel File storage)			2.0~7.0
Baidu	04월 18일	AI 컴퓨팅 서비스			5~30
		CPFS(Cloud Parallel File storage)			30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 주목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AI 인프라 병목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주식 시장에서 CPO, PCB, 메모리 등 기존 주도주 외,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에 주목한다. 네오 클라우드 기업은 쉽게 설명하면 GPU 서버를 임대해주는 회사이다. 미국에는 코어워브, 네비우스 등이 대표 기업이고, 중국에는 협창데이터(300857.SZ), 홍경과기(301396.SZ) 등이 대표 기업이다.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1) 현재 해당 산업이 물량(Q)와 가격(P)이 동시에 상승하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2) 해외처럼 장기 계약 방식을 취하면서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고, 3) 국내외 중국 토큰의 폭발적인 수요로 컴퓨팅 임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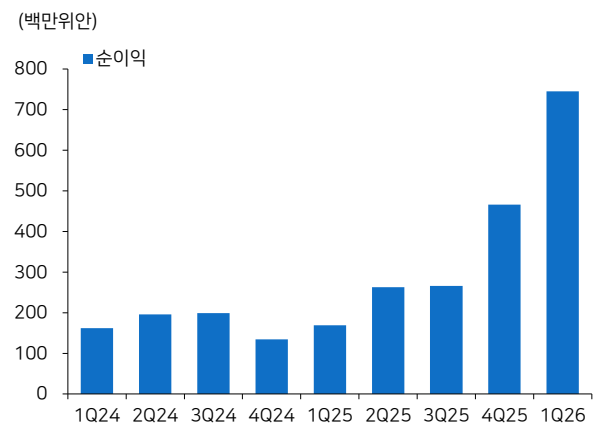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대장주인 협창데이터는 2027년까지 주요 CSP 기업들과 최소 300억 위안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초기 투입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최근 임대 가격 상승이 순이익 레벨을 빠르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그림 9, 10)

그림9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주요 기업 공급 계약 비교

상장사	상장코드	공급 계약 (억 위안)	주요 고객사
협창데이터	300857.SZ	≥ 300	중국 주요 CSP
홍경과기	301396.SZ	≥ 160	알리바바
리통전자	603629.SH	50	텐센트

자료: 현지 언론,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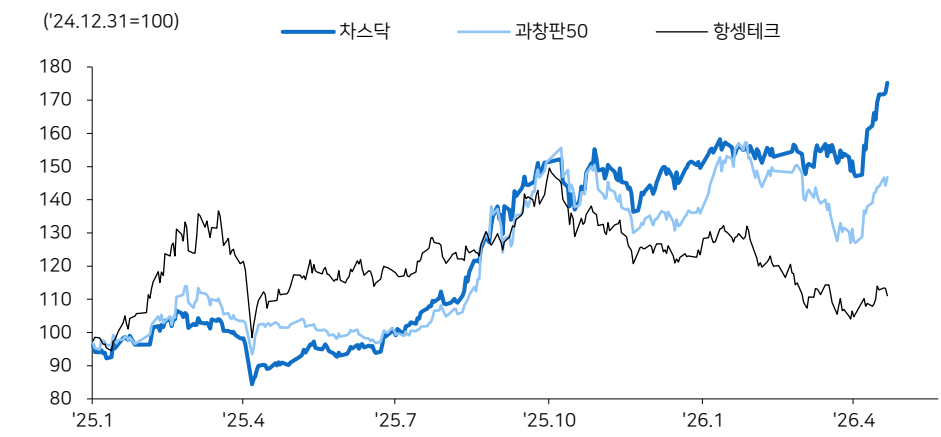
그림10 협창데이터의 분기별 순이익 추이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아쉬운 것은, 이러한 중국판 네오 클라우드 상장사들이 아직 한국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가능한 종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대안으로 해당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차스닥 지수 ETF에 투자함으로써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행히 차스닥 지수에는 현재 중국의 AI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CPO, PCB 대장주가 포함되어 있고 이익 가시성도 높아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그림 11). 한편 액티브 ETF 중에서 중국의 AI 인프라 병목을 해결해주는 수혜주들이 많이 담겨 있는 타임폴리오 차이나 AI테크(0043Y0) ETF를 추천한다.

그림11 중국증시의 주요 기술주 지수 중 차스닥 상승세 가장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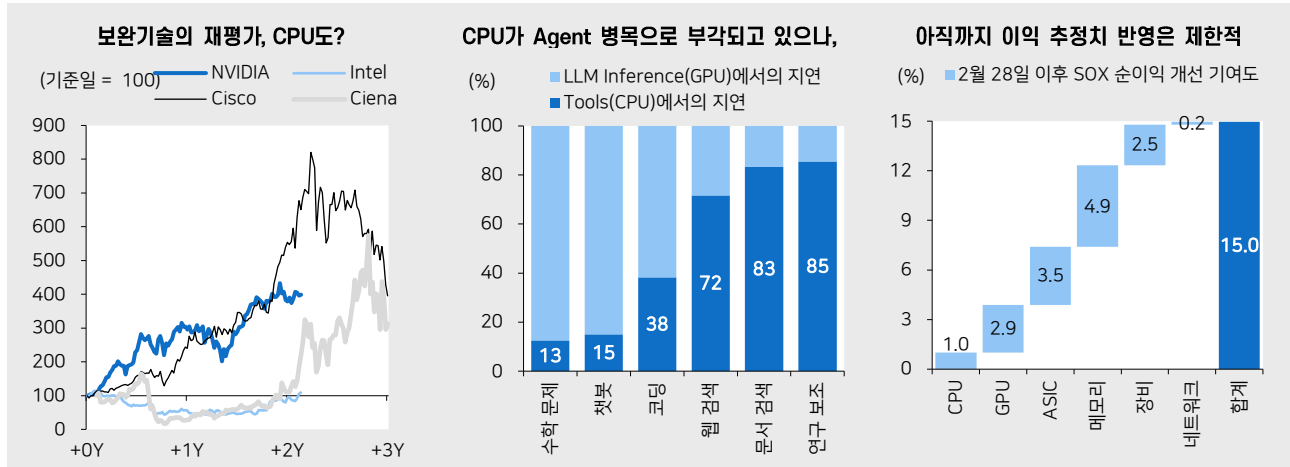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박보경 연구원

GPU 보완기술로서 CPU 재평가



주: 1) Cisco, Ciena 기준일: '98.1.1, NVIDIA, Intel 기준일: '24.1.1

주: 2) CPU: AMD·인텔·마이크로칩·NXP·TXN / GPU: 엔비디아 / ASIC: 브로드컴·마벨 / 메모리: 마이크론·램버스

자료: Bloomberg, A CPU-Centric Perspective (Georgia Tech, Intel, 2026),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텔, AMD 등, 그동안 AI 서사에서 소외되어온 CPU 기업들의 주가가 전월 말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동기간 엔비디아(20%)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90년대 IT 혁명의 후발주자 Ciena처럼 CPU도 보완기술로 재평가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평가의 근거는 CPU 병목이다. Agent 워크플로우가 더 많은 CPU 자원을 요구하는 반면 연산 자원은 GPU 중심으로 확충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주 Georgia 공과대학은 Agent 추론이 복잡해질수록, CPU가 유발하는 지연 비중이 높아진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CPU 용량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며 CPU:GPU 탑재 비율이 1:4-8에서 1:1-2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병목의 초기 신호는 목격되고 있으나, 실적 기대 상향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3월 말 인텔과 AMD가 CPU 가격을 15% 인상했으며, 평균 납기 또한 1-2주에서 8-12주로 늘어났다. 다만 전쟁 발발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12MF 순이익 추정치 개선 15% 중 CPU 기업들이 기여한 바는 1.0%p에 불과하다. 가장 기여도가 큰 부문은 GPU·ASIC·메모리로 각각 2.9%p, 3.5%p, 4.9%p를 설명한다.

CPU 용량 확충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이 미진한 배경은, PC·전통 CPU 사업 부진과 서버 CPU 공급 제약이 맞물린 영향이다. 이 지점에서 90년대 보완기술 기업과 차이가 발생한다. Ciena는 1Q00부터 매출액 서프라이즈 강도를 높여가며 광대역 병목 수혜를 증명했으며, 동시에 Cisco의 상승세를 이어받았다.

즉 현재 CPU 기업들은, 과거 강세의 촉매가 되었던 실적검증 국면에 진입하기 전이다. 실적 개선 전까지 기대가 이어지려면, 이번 실적발표에서 ASP 상승 지속 여부와 더불어, AI 수요의 전통 CPU 부진 상쇄 가능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칼럼의 재해석

최설휘 연구위원

트럼프의 방중, 지켜볼 것은 양국 정상외교 전략 (The Diplomat)

지정학적 리스크에 증시가 술렁이는 요즘, 5월 중순 예정된 G2의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은 ‘역사적’이고 ‘특별’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성과를 공언했지만,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흐름을 바꿀 만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상황 판단과 협상에 능한 ‘딜메이커’인 반면 시진핑 주석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전략가’에 가깝다. 따라서 딜메이커의 즉흥적인 발언과 전략가의 철저히 계산된 대본의 티키타카는 노이즈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양국 정상이 현재의 패권 경쟁을 관리해 나가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특히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 내에서 중국이 구축해 온 외교적 입지와 전략을 고려할 때, 중국은 양국 간 거대 담론에 대한 가시적 ‘합의’ 없이도 충분한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협상 테이블의 주요 안건과 논의의 향방을 점검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방중을 앞둔 중국의 외교적 포지셔닝

오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중국도 외교적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고자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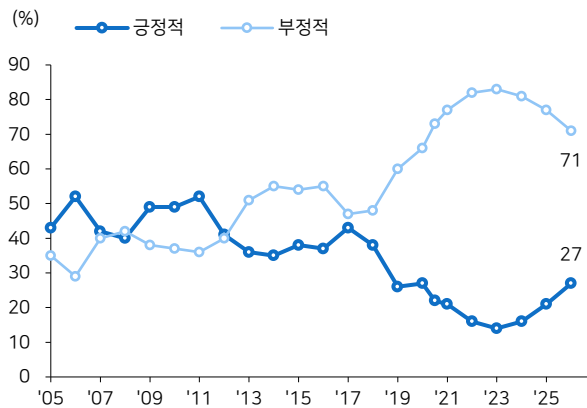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중국은 각국 지도자들을 맞이하며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표1). 작년 7월에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두 번째로 중국을 찾았고, 8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0년 유혈 국경 충돌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대면했다. 작년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국 정상외교의 활발한 대중국 외교 행보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분쟁에서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파키스탄의 다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이란의 종전 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중하여 중국 측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회담 직후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중국·파키스탄 5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물리적 개입에는 철저히 선을 긋는 전략적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지난 4월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이틀간 고위급 교류 강화와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해당 행보는 트럼프의 방중 기간 혹은 올라가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핵 보유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준비하려는 행보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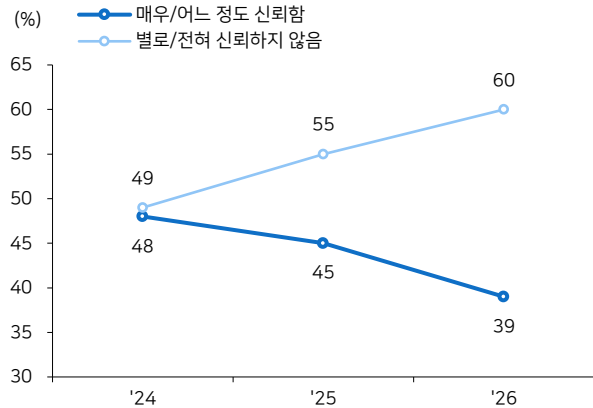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으로 미중 회담에서 중국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가중된 반면,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국제적 신뢰를 착실히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부에서조차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시각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여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 미국의 대중국 정책 처리 신뢰도가 하락하는 현 상황은 미국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1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긍정적인 시각도 증가하는 추세



주: 기존 전화 설문조사에서 '21년부터 온라인 패널조사(ATP)로 전환
자료: Pew Research Cen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처리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



자료: Pew Research Cen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지난 1년간 중국의 주요 외교 행사

발표 일자	주체	행동
'25.1.17	중한정 국가부주석	시진핑 주석 특별대표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5.3.12	중·러·이란 대표단	이란 핵 문제 관련 중·러·이란 베이징 회담 개최
'25.4.11	중시진핑 국가주석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국빈 방문
'25.4.21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방중
'25.4.22	이란 아바스 아라치 외무장관	방중
'25.5.4	중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 방문, 소련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25.5.7	중허리핑 국무원 부총리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제 10차 중·프 고위급 경제금융 대화 개최
'25.5.10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방중
'25.5.19	파키스탄 다르 부총리	방중
'25.5.22	중리창 국무원 총리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 참석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25.6.7	중허리핑 국무원 부총리	영국 방문 및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 첫 회의 개최
'25.6.13	중시진핑 국가주석	제 2차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25.6.20	싱가포르 로렌스 윈 총리	방중
'25.6.27	중왕이 외교부장	EU 본부, 독일, 프랑스 방문 및 관련 고위급 대화 개최
'25.7.2	중리창 국무원 총리	브라질에서 제 17차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자료: 중국 외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발표 일자	주체	행동
'25.7.8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	방중
'25.7.21	EU 이사회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방중 및 제 25 차 중 · EU 정상회담 개최
'25.7.31	SCO 회원국 정상들	방중 및 2025 SCO 톈진 정상회담 개최
'25.8.19	中왕이 외교부장	파키스탄에서 제 6 차 중 · 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25.8.22	中시진핑 국가주석	2025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 및 관련 행사 주최
'25.8.28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행사 참석
'25.9.5	포르투갈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	방중
'25.9.25	북한 최선희 외무상	방중
'25.10.7	中리창 국무원 총리	조선노동당 창건 80 주년 경축 행사 참석 및 북한 공식 우호 방문
'25.10.14	프랑스 보네 대통령 외교고문	방중 및 중 · 프랑스 전략대화 개최
'25.10.24	中시진핑 국가주석	제 32 차 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한 한국 국빈 방문
'25.10.27	카자흐스탄 코세르바예프 외교장관	방중
'25.10.29	中시진핑 국가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25.10.31	러시아 미슈스틴 총리	방중 및 제 30 차 중 · 러 총리 정기 회담 개최
'25.11.3	스페인 펠리페 6 세 국왕	방중
'25.11.5	조지아 보초리슈빌리 외무장관	방중
'25.11.6	태국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중국 국빈 방문
'25.11.17	中왕이 외교부장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방문, 전략대화 개최
'25.11.20	통가 투포우 6 세 국왕	방중
'25.12.1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방중
'25.12.30	한국 이재명 대통령	방중
'25.12.31	파키스탄 다르 부총리	방중 및 제 7 차 중 · 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26.1.3	아일랜드 미홀 마틴 총리	방중
'26.1.12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	방중
'26.1.22	핀란드 페테리 오르포 총리	방중
'26.1.26	우루과이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	방중
'26.1.27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방중
'26.2.9	中왕이 외교부장	2026 년 APEC 제 1 차 고위관리회의(SOM1) 참석
'26.2.10	中왕이 외교부장	제 62 차 뮌헨 안보 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방문
'26.2.23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방중
'26.3.9	中장궈칭 국무원 부총리	시 주석 특별대표로서 제 2 차 원자력 정상회의의 참석
'26.3.13	中왕이, 왕샤오홍, 동진 장관	중 · 베트남 외교 · 국방 · 공안 '3+3' 첫 장관급 회의 참석
'26.3.16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방중
'26.3.31	파키스탄 다르 부총리	방중
'26.4.3	태국 시린톤 공주	방중
'26.4.8	中왕이 외교부장	북한 방문
'26.4.8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	방중
'26.4.10	나미비아 무샤베이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방중
'26.4.12	UAE 할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방중
'26.4.13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중
'26.4.13	中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제 7 차 중 · 투르크메니스탄 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 중국 외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월 미중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안건은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제재를 소폭 완화하는 선에서 ‘유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과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안보와 직결된 안건들, 즉 △대중국 관세 유예, △중국기업 블랙리스트 해제, △대중국 투자 제한 완화, △미국의 대만항 무기 판매 중단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은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핵심 협상 카드로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초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대 500대 규모의 보잉 항공기 주문을 두고 협상 중이며, 이를 미중 협상의 주요 성과로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양국의 리더십 경쟁

하지만 전문가들은 큰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전략대로 하지 않는 게 전략인 ‘딜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즉각적인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협상에 임한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당의 공고한 시스템 기반으로 수십 년 단위의 장기 비전에 맞춰 계산 후 협상하는 ‘전략가’에 가깝다. 즉 딜메이커의 즉흥적인 발언과 전략가의 철저히 준비된 대본이 오고 가며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지만, 갈등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양국 정상이 현재의 패권 경쟁을 관리해 나가는 방식에 더 집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환경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다자외교와 평화로운 중재자 역할로서 ‘안정적인 파트너’라는 일관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투사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더라도 ‘전략적 승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점차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중국이 이러한 포지셔닝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각인시킨다면 향후 자국의 장기적인 외교적 위상과 실질적 영향력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문: *When Trump Goes to China: It's the Strategy That Matters (The Diplomat)*